

다산포럼

박호성



마치 여가선용이라고 하듯이, 일본이 또 다시 독도 문제를 야금야금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학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 새로이 양탈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신시대'를 선언한 양국 정상 합의서 인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이 날카로운 '어퍼컷'을 치고 나선 셈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실용성 없는 외교 실용주의의 산물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용성 없는 외교 실용주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탈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특히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속박하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오랫동안 필박받은 민족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유증의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요즈

음 저자거리의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주위의 여러 민족들과 연관지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이를테면 한국에 사는 성실한 사람은

'착한자식'(着韓子息),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호로자식'(好露子息), 미국과 친하려는 사람은 '미친자식'(美親子息) 등 속으로 부르는 조어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이다.

베토벤과 괴테와 칸트를 낳은 나라와 히틀러를 잉태한 나라가 다 같은 나라다. 독일은 한편으로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곁출한 철학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반인륜적인 대항살을 자행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뼈아픈 참회의 노력을

끈덕지게 되풀이하고 있다. 예컨대 베를린 거리에는 아직도, "이 광장에서 유대인은 단지 노란색 표시가 찍혀 있는 벤치만 이용할 수 있음, -1939년"이라든가, 또는 "베를린 수영장은 유대인 사용 불가"하는 등의 과거의 참혹한 기억을 되새기게 만들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뉘우침과 다짐으로 아로새겨진 히틀러 시대의 팻말들이 기념비처럼 서 있다.

가령 폰 바이체거 전 대통령은 "과거에 눈감는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멀게 된다. 비인간성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자는

만 아니라 자신의 수많은 전쟁 범죄들을 축소·왜곡하면서, 오히려 '억울한 오해'나 '중상모략'이니 하는 자가당착까지 저지르는 형편이다. 그러하니 신사를 찾아가서 머리 숙여 전법들을 참배하며, 이들을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하는 태도를 얼마나 당당한 애국적 행위라 찬양할 것인가.

독일의 뼈아픈 참회와 대조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되 단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사죄하되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과거 청산이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지금 제2의 민족 해방운동이 절실하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 인식에 입각하여, 다음 달 있을 광복절부터 즉시 대통령과 전 내각이 참석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8·15 경축행사를 독도에서 거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각오로 한·일 관계에 임해야 한다.

〈서강대 교수·다산연구소 제6〉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15 경축식을 독도에서!

새로운 압력 위험에 놓이기도 쉽다"고 역설하며, 독일인의 각성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전쟁 후 베를린에 건립된 '전쟁 반성 기념관' 역시 이러한 역사 인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 불감증 환자다. 아니 역사적 맹인이며 귀머거리다. 일본인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자신이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밖에 없는 듯하다.

일본은 이른바 '유감' 표명과 같은, 부담 없는 외교적 인사만 남발해왔다. 뿐

시설

'균형' 빠진 지역발전정책 실효성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큰 틀에서 이어받되 보다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균형과 분산보다는 경쟁과 협력, 분권에 역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그동안 재검토 논란이 있었던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의 큰 틀을 바꾸지 않은 것은 '유명무실'한 도시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을 강요하기 보다는 균형발전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대로라면 혁신도시 등 지방성장거점도시의 발전 방안은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지자체가 발전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거점도시는 '유명무실'한 도시로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자체 간 성장 잠재력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경쟁만 내세워진 지역발전정책은 오히려 차별정책이 될 수 있다.

지역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혁신도시 등 지방거점도시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특히 지방 거점도시 발전의 핵심은 기업유치에 달려 있는데 정부가 모토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모순도 있다. 정부는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뒤에 수도권 규제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어디까지가 지방발전의 토대가 되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을 강요하기 보다는 균형발전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영터리' 기상예보 근본원인부터 밝혀야

기상청의 주말 일기예보가 4주째 빗나가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5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슈퍼컴퓨터까지 구입했는데도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기상 중계청' '구라청' 등의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겠는가.

기상청은 광주·전남의 19일 예상강수량을 20~60mm로 예보했지만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장흥의 강수량이 28mm에 그쳤다. 20일 예상강수량도 최고 120mm를 예보했지만 보성, 곡성 등 일부 지역에만 3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서울과 중부지역에선 불과 3~4시간 뒤의 폭우까지 예측하지 못할 정도였다.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산업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난 대비 차원에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현실에서 풍일도 아닌 주말예보가 4주째 '영터리'였으니 한심하다. 기상청

홈페이지는 빗나간 예보로 낭패를 본 국민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기상예측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여름날씨는 변덕이 심해 어려움이 많다. 국지성 폭우는 게릴라처럼 발생해서 소말까지 불과 2시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잘못된 예보시스템을 방치할 수는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까지 확보한 기상청이 '예보'가 아닌 '오보'를 내는 것은 큰 문제다. 기상청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장비가 문제인지, 인력이 문제인지 근본원인을 밝혀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장마철에 태풍도 예상돼 있다. 선진국들이 시간대별, 동네별도 정확도 높은 '맞춤형'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기상청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

NGO 칼럼

이상옥



"오메 누구다냐? 아니 떡에기를 벌써 데리고 나오면 어쩐다냐?" "선생님 보여 드리려고요." 문뜩 사이로 스치는 바람도 맞지 못하게 할 듯이 지난 아기를 안고 P가 센터에 들어선다. 갑자기 사무실 안은 아기 침대를 꺼내며 비상이 걸렸다. 산모나 아기가 아직 외출하기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 꼭 합격하겠다고 배부른 몸이지만 날마다 센터에 나와 공부하던 중 톤통이와 부라부라 119를 불러 산부인과에 보냈더니 2시간 만에 예쁜 딸을 낳은 여성이다. 만삭의 몸으로 시험을 본 그녀는 당

박하고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아기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민들레 흙처럼 혼자 멀리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예쁘고 야무진 여성들이다.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움에 조금 떨어지는 여성도 있지만 이들은 한국 땅에서 더 열심히 배우려 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이런 여성들이 알콩 달콩 사는 모습을 이 곳에서 보며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만명에 달하는 이주여성·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 아이들에 포커스가 맞

다문화 패밀리 센터는 희망발전소

당히 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따냈다. 우리 센터에 나오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데도 부지런하다. 센터에는 며칠 걸려 아기 낳았다는 전화가 온다. "000 아기 낳았대요, 3.4 킬로그램이예요."

"이달 들어 몇 번인가?" "세 번째요!" "지난 달에 다섯 명이었지?" (사)이주가족복지회 한국어 교육과 정에는 매일 70여명이 단계별로 나누어 출석하고 있다. 그 중 30%는 임신 중이며 하루 6~7명의 아기도 함께 출석하고 또 상당수 여성이 산후조리 중이다. 한국의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는 평균 자녀 수)이 1.2명으로 세계 193개 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은 많게는 5명에서 3명까지 자녀를 둔 가정이었다.

그들은 대다수 모유 수유를 하며 소

취해야 한다.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투자는 한국사회의 복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시 해서는 화가 될 수 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광주 지역 다문화 지원전문가 협의회는 이주 여성과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과 제도 연구를 위해 광주에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이 센터는 다문화아동센터, 가족관, 체험관, 교육관, 정보관, 연구소, 연수원 등 다문화의 비전과 동력을 생산하는 희망발전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여성단체, 관련 학과 교수,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한 마음으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한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을 위해 광주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사)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

상대방 기분 해쳐가면서까지 포교활동 해서야

얼마 전 비가 오던 저녁 퇴근길에 지하철 출구에서 계단 입구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다. 손에 우산과 가방을 들고 있어 전단지를 받을 수 없었다. 급한 마음이기도 해서 그냥 막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행하니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뒤에서 "안 받으시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날라왔다. 필자는 너무 기분이 나빠 "당신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천당 운 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종교인들까지 욕 먹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일갈을 주었

다. 하지만 불쾌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물론 자신이 믿는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퇴근 후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옥에 간다"는 저주를 들으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이는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해쳐 포교가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한 반감만 심어줄 뿐이다. 포교 활동이 어느 종교이건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침동



죽은 척하기



동물들 중에도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특출난 녀석들을 가끔 듣거나 본다. 한 번은 '스펀지' 라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실험을 직접 해볼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경사를 관리하는 아주머니께서 '영국평' 수컷이 부상을 입었는데 와서 봐 달라고 했다. 그곳에 가보니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 녀석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녀석이 아주머니가 만만하게 보이던지 청소할 때마다 덤벼드는 모양이었다. 남자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여자들에게만 달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항 잡을 거면 TV에서 본 실험을 직접 해보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닭을 거꾸로 낚은 후 그 닭의 가슴을 20분 정도 문지르면 닭이 마치

기질한 것처럼 한참 동안 꼼짝도 안한다는 것이다. 실험도 할 겸 그동안 당한 복수도 할 겸해서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다.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거절처럼 아주머니가 가슴을 한참 문지르자 녀석은 마치 죽은 듯이 정말로 눈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5분 동안 치료하는데도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고 모두 나오자 그 제사야 녀석이 서서히 몸을 풀고 원상태로 돌아왔다.

과연 녀석은 정말 죽은 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장이 뒤집혀서 잠시 기질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다음부터 이 녀석 다루는 일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장난 심한 아이 나무랐다고 학부모가 교사에 횡포

얼마 전 학교에 갔다가 언짢은 경험을 했다. 학교에서 한 남자 아이가 여학생들에게 별 이유 없이 얼굴을 때리고 책상을 던지며 위협했다고 한다. 심지어 짓궂다고 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쳐 여학생들의 가슴을 손으로 톹 치는 행동까지 서슴지않아 여학생들이 그 아이만 보면 피해 다닐 정도라고 한다.

결국 학교에서 아이 부모를 잠시 와달라고 했는데 학교에 찾아온 아이 부모가 더 가관이였다. 피해를 당한 아이 엄마도 찾아와 학교와 그 남학생의 엄마에게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경 써달라고 하자 남학생 엄마는 "원래 조용한 성격의 아이인데 학교에서 지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 애만 나무라지 마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심지어 "아이를 문제아 취급하는 담임선생들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며 흥분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이더러 물었더니 그 남학생의 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약간 부유한 집 아이 같은데 행동에 조심심이 없어서 같은 남학생들조차도 가까이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야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아이 때문에 학교에까지 찾아간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같은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 자식 예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잘못된 아이를 꾸짖는 게 진정한 부모이거늘 아이를 무작정 '소환제'처럼 키우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無等鼓

일본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나라다. 이에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왔다. 이제 는 잊혀졌지만 19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모욕적인 인사로 한국민들의 자긍심을 심하게 훼손한 적이 있었다. '한국이 올림픽을 반납하면 우리가 대신 치를 수도 있다'는 무례하고 오만한 표현이 그것이다.

그 후로도 한 술 더 떴다. 세계인을 상대로 올림픽을 한국에서 하더라도 관공은 일본에서 하자며 내놓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말하는 '반사효과'를 누리며 당시 경제 측면에서 쓸쓸한 재미를 봤다.

일본의 노골적인 태도가 야만기는 하지만, 올림픽은 스포츠축제 이전에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행사임에 틀림없다.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겨루기를 하지만 세계의 기업들도 치열하게 경쟁한다.

다음달 8일 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은 현재 글로벌기업들의 격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중국을 응원하자는 방송광고를 연일 내보내고, 펄스콜라라는 파란색 캔을 중국인이 좋아하는 붉은 색으로 바 꾸고, 나이키는 아예 중국선수들이 다

른국가 선수들을 이기는 내용을 광고로 내 보내며 아첨을 떨고 있다고 한다.

맛할 일 아니다. 한 국가기업과 경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고화질 TV시장으로 대표되는 전자, 첨단 디지털 설비·휴대폰 등의 통신, 건설에서부터

올림픽과 경제



기계, 철강까지 올림픽은 대회 이후까지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관광 산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World, One Dream)이다. 한국경제의 '하나의 꿈'인 이익 창출의 호기이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